

포맷 바꾼 '유 퀴즈...' 랜선 무대 '트롯신...'

'유 퀴즈...' 특정 직업 유명인 찾아 '트롯신...' 해외촬영서 랜선 선회 '어서와...' 주한 외국인 일상 초점



SBS '트롯신이 떴다'

'정해진 길은 없다. 걸어 나아가면 길이 되고, 그 위에서 방향은 지혜롭게 바꿀 수 있다.'

최근 일부 예능프로그램의 흐름을 이처럼 설명한다면 과장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작상 갖은 장벽에 부딪힌 일부 예능프로그램들이 구성과 내용을 확 바꾸면서 새롭게 시청자 시선을 끌고 있다. 감염병 확산 여파로 많은 방청객을 모을 수 없고, 해외 촬영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제작진의 교육지책이지만, 이를 넘어 '슬기로운 제작생활'의 모범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상은 넓고 소재는 많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무대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다. 당초 진행자인 유재석과 조세호가 거리와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 시민들과 퀴즈를 풀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존 방식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4월 말부터 전문직종 등 시청자의 호기심이 향하는 특정 직업의 유명인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바꿨다. 17일 제한적 특집으로 박일환 전 대법관 등 법조인,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성공관대 한문

교육과 이명학 교수 등 교육자, 경찰 이야기를 다루며 영화 '범죄도시' 마동석의 모티브가 된 윤석호 경위 등을 등장시켰다. 22일에도 돈을 주제로 한국조폐공사 직원 이종학 씨, 서울시청 세금 징수와 이용범·송정민 씨 등과 대화를 나눴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 관련 촬영이 불가능해진 프로그램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선회했다.

남진·김연자·진성·설운도·주현미·장윤정 등을 내세워 "케이트롯트의 세계 진출"을 기치로 내건 SBS '트롯신이 떴다'는 최근 랜선 무대를 택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 한국 트롯트의 시장 넓히기를 시도했지만, 이제 코로나19로 해외 공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청객이나 관객 없이 공연을 펼치고 이를 온라인으로 선보이고 있다.

MBC 예브리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모국의 친구와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해 함께 여행하는 포맷이었다. 하지만 감염증 여파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주한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참에 새롭게 바뀌보자"

이 같은 변화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제작진의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더욱 더 새롭고 신선한 분위기로 시청자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구성과 내용을 바꾸면서 꾸준히 시청률을 높여왔다. 최근 방송 분인 17일 제한적 특집은 3.2%(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다. "랜선 버스킹으로 전 세계 200만명에게 케이트롯트를 들려주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새롭게 내건 '트롯신이 떴다'도 최근 해외 접속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방송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작진의 노력이 녹아든 변화이지만, 기존의 고정적인 제작방식만을 고수하려는 또 다른 예능프로그램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다시 집합금지명령!...대형 콘서트 비상

'미스터트롯' 서울공연 잠정 연기 '팬텀싱어3' 갈라 콘서트도 취소



김효중

좌석간 거리두기를 적용해 공연을 개최하기로 했던 대형 콘서트가 최근 다시 줄줄이 취소되면서 공연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청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중밀집장소인 공연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형무대가 무산되자 각 주최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미스터트롯' 콘서트 제작사인 쇼플레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서울 공연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관할구청인 송파구가 전날 체조경기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내린 5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결정이다. 애초 4월 개최를 예정했던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을 옮기는 것은 네 번째다.

제작사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20일부터 공연장에 각종 무대장치를 설치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리허설을 취소했다. 27일까지 공연 진행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제작사는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제작사는 "총 방역비용으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면서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연세한 공연 기획사가 공연 제작비 수입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기 예정된 콘서트 상황도 비슷하다. 그룹 태사자는 25일과 26일 '2020 태사자 콘서트-더 리턴'을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려고 했지만, 20일 급히 1000여석 규모의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로 장소를 옮겼다. 31일과 8월1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기로 한 '팬텀싱어3' 갈라 콘서트도 21일 잠정 취소됐다.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 공연 주최 측도 앞날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8월8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콘서트 '별라 판타지아'를 여는 그룹 포레스트의 소속사 아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지만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김효중도 단독 팬미팅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장소 변경과 규모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로제 '매혹적인 눈빛'



'역시 눈빛 장인!' 패션매거진 더블유코리아가 22일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몽환적인 매력에 담긴 화보를 공개했다. 연보랏빛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로제가 당당한 포즈와 시크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배꼽 위로 말이 올린 티셔츠 사이 드러난 선명한 복근으로 건강미까지 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더블유코리아

영화 '기생충', 세계 고전명작 목록에 등록

美 크라이테리온 컬렉션 선정



영화 '기생충'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인 '고전명작'의 위상을 굳혔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고전명작 영화만을 모으는 미국의 DVD·블루레이 명가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10월 흑백전과 감독판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봉 감독의 2003년 작품 '살인의 추억'도 목록에 올라 함께 나온다. '기생충'에는 봉 감독과 세계적인 영화평론가 토니 레인즈의 해설, 박찬욱 감독의

한국영화에 관한 이야기 등도 담는다.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은 세계영화사에 기록될 만한 고전명작을 선정해 DVD와

블루레이로 소개해왔다. 그만큼 '기생충'과 '살인의 추억'이 뛰어난 작품임을 인정받은 셈이다. '기생충'은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올해 2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의 빛나는 성과를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2013년 크라이테리온 컬렉션 작품 가운데 10편을 뽑아 추천한 경험이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프랑스와 튀르피 감독의 '400번의 구타'와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존 말코비치 되기' 등을 추천했다.

한편 '봉바타'로 불리며 봉준호 감독의 통역자로 활약했던 사본 최도 '기생충'을

알리는 무대에 다시 섰다. 사본 최(최성재·27)는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부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르기까지 봉준호 감독 특유의 비유적 언변을 완벽한 언어 감각으로 되살려내는 영어 통역 실력을 발휘해 '봉준호의 입'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는 22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국제영화제의 '스테이 앳 홈 시네마(Stay At Home Cinema)'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소개했다. 영화제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해당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전문가가 들려주는 무대에서 사본 최는 '봉바타'답게 '기생충'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관객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연매협 "매니저 근무환경 실태 전수조사"

최근 잇달아 불거진 연예인과 매니저 간 갈등과 관련해 한국연예매니저먼트협회(연매협)가 매니저 근무환경 실태 전수조사를 거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연매협은 이날 "연예인과 매니저의 연이은 마찰과 폭로 혹은 호소 주장을 펼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대책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며 말했다. 향후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회원뿐 아니라 모든 연예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점차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아이하트라디오 페스티벌' 출연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9월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미국의 대규모 음악축제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iHeartRadio Music Festival)에 출연한다.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미국 온라인 라디오 플랫폼 아이하트라디오 측이 22일 공개한 라인업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콜드플레이, 마일리 사이러스, 어셔 등 세계적 스타들이 출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9월18,19일 이틀간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고, 가수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내슈빌에서 원격으로 공연을 펼친다. 방탄소년단은 국내에서 사전녹화 방식으로 참여한다.

'프로듀스' 시리즈에 최고징계 과징금 부과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와 아이돌 데뷔조 순위 조작한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로부터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소위는 2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 방송사에 '흑역사'를 남긴 국면적 기만 행위"라며 위원 전원 의견으로 '프로듀스' 시리즈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6년부터 4편의 관련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명필름,故 노회찬 전 의원 다큐 제작



故 노회찬

영화사 명필름과 노회찬재단이 손잡고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명필름은 22일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 노회찬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 '노회찬,6411'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필름과 노회찬 재단을 비롯해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영화사풀이 공동으로 제작한다. '미스터 캠퍼니', '제주 노트' 등을 만든 민환기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명필름은 영화를 완성해 노회찬 의원 3주기인 내년엔 공개할 예정이다.

종현 '하루의 끝', 오케스트라 연주로 재탄생



종현

사이니의 종현이 부른 '하루의 끝'이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오케스트라 연주로 재탄생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22일 "서울시향과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음원 '하루의 끝' 오케스트라 버전을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루의 끝'은 2015년 발표한 '이야기 Op. 1'의 타이틀곡으로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오케스트라 버전은 세계적인 현판곡가 겸 영화 음악 감독 박인영이 편곡했고, 도입부에는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Clair de Lune)을 샘플링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